연예뉴스 스테이션

윤아-이승기 교제 2년만에 결별

윤아

이승기

소녀시대 윤아(25)와 이승기(28)가 교제 2년 만에 결별했다. 윤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이먼트 측은 13일 "두 사람이 결별했고, 현재는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결별 시기와 사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사적인 부분이고, 당사자들이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연예계 여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두 사람이 헤어진 시기는 소녀시대가 7월 싱글 '파티'로 컴백하기 직전으로 보인다. 공개연애로 인한 부담감이 결별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결국 스트레스가 되면서 두 사람 사이도 어색해졌다는 것이다. 또 두 사람의 바쁜 활동도 원인이 됐다. 윤아는 올해 초부터 중국 후난위성TV 드라마 '무신조자룡' 촬영과 소녀시대 5집 준비로 바빴고, 이승기도 영화 '오늘의 연애'과 자신의 6집 준비로 쉴 틈 없었다.

싸이·박진영·송대관, 나란히 법정소송 승소

가수 싸이와 박진영, 송대관이 13일 각자의 소송에서 나란히 승소했다. 싸이는 자신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끝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임차인은 싸이에게 5, 6층을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진영은 작곡가 김신일과 진행해온 표절 소송에서 이겼다. 김신일은 2012년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영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수 송대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무죄를, 그의 아내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새롬·이찬오 교제 4개월만에 결혼

김새롬

이찬오

방송인 김새롬(29)과 이찬오(32) 요리사가 13일 서울의 한 연회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양가 가족들과 일부 친지들만을 초대해 점심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지인들의 소개로 4월 처음 만난 지 4개월 만이다. 속도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김새롬 소속사 초록뱀 주나 E&M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새롬은 2004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이고, 이찬오 셰프는 올리브TV '올리브쇼 2015' 등에 출연했다. 배우 박준면(39)도 이날 다섯 살 연하의 신문기자와 서울 용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들은 결혼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혼인신고로 예식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박준면이 첫 번째 음반 '아무도 없는 방'을 발표하고 가수로 활동하며 처음 만났다.

엠넷 '쇼미더머니4' 마지막회 28일 생방송 결정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앞둔 엠넷 '쇼미더머니4' 마지막 회가 28일 밤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돌발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13일 "사전 스포일러를 방지하고, 결승전의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현재 제작진은 방송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쇼미더머니4'는 최근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산부인과를 비하하고, 블랙넛이 죽부인으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로 물의를 빚었다.

공연 랭킹

8월 7일~8월 13일 자료: 인터파크

1위 공연 정보보기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엘리자벳〉	옥주현
2	뮤지컬 〈신데렐라〉	안시하
3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마이클 리
4	뮤지컬 〈명성황후〉	김소현
5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류정한
6	뮤지컬 〈아리랑〉	서범석
7	뮤지컬 〈헬로 카봇〉 - 서울 앵콜	-
8	연극 〈옥탑방 고양이〉 - 대학로	김선호
9	번개맨의 비밀 4	-
10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김종구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일제강점기 영화는 망한다? 통념 깨고 싶었다"

2012년 '도둑들'에 이어 '암살'로 두 작품 연속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최동훈 감독은 할리우드로부터도 연출 제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할리우드보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영화감독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목표"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광복절 1000만 관객 돌파…영화 '암살' 최동훈 감독을 만나다

'타짜'도 주위에서 말렸지만 흥행 성공
흥행코드보다 '나만의 확신'으로 연출
할리우드 러브콜 좋지만 목표는 아냐

영화 '암살'이 광복 70년을 맞는 15일 또 하나의 1000만 관객 흥행 기록을 쓴다. 엄혹했던 1930년대 기꺼이 목숨을 내던져 항일독립운동에 나선 투사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폭넓은 관객의 지지 속에 뭉클한 감동과 공감을 얻은 결과다.

무엇보다 흥행 기록이 탄생하는 날이 광복절이란 점은 '우연'으로 넘기기엔 의미가 상당하다. 연출자 최동훈(44) 감독의 선구안과 감각, 대중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실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영화가 900만 관객을 막 넘어서던 10일, 제작사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 케이퍼필름 사무실에서 최 감독을 만났다. "열흘 전 교통사고를 당해 3주 진단을 받았다"는 그는 "그냥 똑같이 지낸다"며 덤덤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암살' 제작을 반대한 의견도 있었다는데.
"자신 있게 '이 영화, 망하려고 하는 거죠'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하하!"
-누가 그렇게 반대했나.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 일제강점기 영화는 흥행이 안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통념이 무섭다. 상업영화 한 편이 성공하면 비슷한 영화가 쏟아진다. 예를 들어 1959년 '벤허'가 흥행하고 비슷한 영화가 쏟아지다 1960년대 영화 '클레오파트라'가 폭삭 망한 뒤에 사라졌다. 모두 통념의 결과다."
-이정재는 촬영장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감독 보기가 미안했다더라.
"내가 많이 뛴다. '감독은 무릇 영화를 발로 찍는다'고, 일본의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은 말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지금도 영화 촬영 전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체력단련이라 답한다."
-관객의 사랑이 뜨겁지만 냉정한 평가도 받는다. '톱스타만 고집한다'는 식의 평가다.
"글세…. 이정재와 전지현은 '도둑들' 촬영 때는 이 정도 스타는 아니었다. 하하! 스타를 찾는다기보다 적합한 배우를 찾는다. 그들이 스타인 것이다. '암살'의 안옥윤을 누가 맡을 수 있을까. 전지현이 아닌 누가 가능할까. 가장 어울릴 만한 배우를 기용하는 게 맞다."
-여럿이 작전을 펼치는 케이퍼무비를 특히 선호한다. 변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나도 날 잘 모르겠다. 굳이 주장하자면 데뷔작 '범죄의 재구성'(범죄)부터 '도둑들', '암살'까지 서로 다른 영화다. 사람들은 같은 카테고리로 묶고 싶겠지만. '범죄'는 다들 흥행이 안 될 거라 했지만 나는 재미있었다. '타짜'땐 만화를 영화로 만들어 실패할 거라 했다. 그런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최동훈 감독은 인터뷰 도중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소위 업계에서 통용되는 '흥행 코드'보다 자신의 '확신'을 믿는다는 투였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영화가 좋다"고 했다. "좋은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다. 재미를 하나씩 따져 보면 그 의미는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재미가 의미의 반대말은 아니잖나. 재미를 위한 나의 투쟁은 영원하다."

-'암살'의 순제작비는 180억원이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런데도 촬영하다보면 계속 부족하다. 세트부터 차량 이동까지 계획을 아주 잘 세워야 했다. 한 번 어긋나면 전부 비틀어지니까. 사전작업이 8개월이나 걸린 이유다. 오차 없이 예산을 지켜냈다."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특위 장면으로 영화를 끝낸 이유가 궁금하다.
"반민특위 이야기를 영화에 넣을지 말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영화를 단순한 활극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영화의 인물들을 완성하기 위한 결말은 반민특위여야 했다. 시나리오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정했지만 그 결말은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짧게 다뤄 아쉽다. 나중에, 누군가, 본격적으로 그리지 않을까."
-관객의 평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라스트 장면 멋지네! 염석진(이정재)이 황무지에서 죽는 이유? 일장춘몽이다. 살고 싶던 사람이 외롭게 죽어간다. 통쾌하고, 애처로움이 섞인 이상한 기분을 주고 싶었다."

'도둑들' 성공 이후 그는 몇몇 할리우드 스튜디오로부터 연출 제안을 받았다. 미국으로 건너가 관련 미팅도 진행했다. 제안은 지금도 이어진다. 적합한 기회가 온다면 거부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할리우드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면서 "나이 들어, 계속 영화감독으로 살아가는 게 내 진짜 목표"라고 했다.

-후속작 가운데 한 편은 경찰 이야기다.
"며칠 전 영화 '베테랑'을 봤다. 와! 정말 재밌었다. 경찰 이야기, 나는 과연 어떻게 찍어야 하나. 색다르게 찍고 싶다. 다음 영화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늘 '아! 이번엔 정말 잘 찍어야지' 한다. 하하!"
-남편이 연출하고 아내가 제작하는 방식은 어떤가.(그의 아내는 영화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다. 이들은 '도둑들'과 '암살'을 함께했다.)
"편하다. 내가 운이 좋다고 평가받는 건, 전부 제작자를 만난 운이 좋아서다. 걸출한 제작자인 싸이더스의 차승재 전 대표 덕분에 '범죄'로 데뷔했다. '전우치'는 쉬운 영화가 아니었지만 영화사 집의 이유진 대표 덕을 봤다. 안수현 대표가 아내라서 가장 좋은 이유? 감독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날 너무 잘 아니까. 난 일만 하면 되는 거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이기철 작가·류성희 미술감독 '암살' 흥행 숨은공신

일제강점기 시나리오·무대장치 호평

'암살'의 1000만 관객 흥행 배경에는 '숨은 미다스의 손'의 역할도 컸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출자 최동훈 감독과 합심해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완성한 숨은 주역은 시나리오를 집필한 이기철 작가와 류성희 미술감독이다. 이들은 '암살'이 다룬 엄혹한 시대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했고, 그 역량은 1000만 관객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기철 작가는 '도둑들'에 이어 '암살'에도 최동훈 감독과 함께 공동 각본가로 활약했다. 최 감독과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998년 입학 동기이기도 하다. 졸업 뒤 몇몇 영화의 연출부 생활도 함께 했던 이들은 '도둑들'부터 공동 각본가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최 감독은 이 작가를 두고 "가장 냉정한 나의 검열자"라고 평했다. 두 사람은 시나리오를 함께 쓸 때는 엄청난 양의 대화를 나눈다. '도둑들'로 처음 작업하면서 촬영장 헌팅을 함께 다녔고, '암살' 집필 때는 부산에 작업실을 마련해 함께 했다.

이기철 작가

류성희 미술감독

류성희 미술감독의 활약도 지나치기 어렵다. 관객을 실제 일제강점기로 몰아넣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는 영화 속 다양한 미술적 장치는 모두 그의 기획에서 나왔다. 가상의 공간에서 시대적 인물을 연기한 전지현마저 "연기나 영화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완벽한 세트에 빨려 들어갔다"고 표현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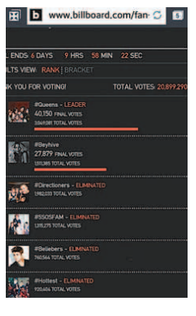
류 미술감독은 올해 1월 1000만 관객을 모은 '국제시장'의 미술도 전담했다. 그보다 앞서 '변호인'도 맡았다. 이번 '암살'의 흥행까지 더해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현대사를 아우르는 한국영화의 대표작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한 셈이다.
이해리 기자

티아라 vs 비욘세…美 빌보드 팬심 대결

'최강 팬클럽' 투표서 1위 박빙승부

걸그룹 티아라가 '세계 최강의 팬덤을 지닌 가수'에 등극할까. 소녀시대나 투애니원 등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는 티아라가 의외의 해외 팬덤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티아라는 미국 음악전문매체 빌보드가 '누구의 팬클럽이 가장 강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진행 중인 '팬 아미 페이스오프'(Fan Army Face-Off) 투표(사진)에서 팝스타 비욘세와 1위를 다투고 있다. 투표 마감 시한 19일을 6일 남겨둔 13일 오후 2시 현재 티아라는 득표수 3만9607표로 2만7441표의 비욘세에 앞서고 있다. 1만여 차이의 박빙승부로 보이지만, 예선까지 포함한 누적 투표수를 보면 티아라가 304만8538표로, 151만947표의 비욘세에 2배 차이로 앞서고 있어 낙승이 예상된다.



이번 투표는 전 세계 인기가수 64개팀의 팬클럽을 대상으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토너먼트 방식의 이벤트. 티아라는 씨엔블루, 걸스데이, 씨스타, 2PM을 차례로 눌렀다. 작년 우승팀 빅뱅은 2PM과 맞붙어 탈락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팬클럽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여성그룹이 남성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팬덤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티아라의 활약이 눈길을 모은다. 중국어권 팬들의 지지가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부터 중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티아라는 작년부터 올해 초 '중국의 싸이'라 불리는 젓가락형제와 '작은 사과'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티아라는 2012년 이른바 '왕따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뒤 '안티'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케이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